Min Byeong-hun

Capsule Introduction

SNU CSE Distinguished Lecture Series

나는 단순한 것을 좋아한다. 그래서 논문도 복잡한 논리 전개와 글자 뒤집어진 것과 같은 수식이 나오는 논문을 싫어하고 작은 개수의 명확한 메시지를 간결한 논리로 전달하는 논문을 선호한다. 그런 이유로 연구실 석박사과정 학생들에게도 논문을 쓸 때 논리가 복잡해 지고 이야기가 장황해 지면 연구한 내용의 앞뒤가 맞는지 다시 한번 살펴 보라고 주문을 한다.

사람을 소개할 때도 그렇다. 복잡하게 학력, 경력, 업적을 길게 늘어 놓아야 하는 그런 소개는 개인적으로 불편하다. 명확한 한두 문장으로 그 분의 지난 시간을 함축할 수 있는 그런 소개가 편하다. 이번 우리 학부 Distinguished Lecture Series의 연사분이신 민병훈 LG전자 M&S 연구소 소장님이 그런 분이시다. 단 한 문장으로 업적을 이야기 할 수 있는 분 - "불모지에 가까웠던 우리나라 광 스토리지 (CD, DVD, etc) 분야에서 LG 전자가 세계 #1으로 우뚝 설 수 있게 한 장본인" 바로 그 분이다. 더 이상 무슨 소개가 필요하겠는가. 그러한 분으로 부터 세계 #1이 되려면 필요한 역량과 Leadership을 컴퓨터 분야에서 세계 #1을 지향하는 우리 학부 다음 세대 꿈나무들이 배우고 가슴 깊게 새겨두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사족이지만 관련하여 조금 내용을 추가하면 LG 전자는 현재 광 스토리지 드라이브 분야에서 매출액 세계 1위이고, 민병훈 연구소장님은 이러한 공적으로 LG전자 최초로 Hall of Fame에 헌정되셨고, 그 외에도 전자부품기술대상 대통령상, 장영실상, 산자부 선정 신기술상 등 다수의 상을 수상하셨다. 마지막으로 민병훈 연구소장님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 학사/석사를 받은 동문이시다.

민상렬, 2011년 4월